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2017. 8 | Vol. 272호

#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해오름요양원  
한결 같은 마음

# 백중(우란분절) 영가천도 49재

정유년 백중(우란분절) 맞이 영가천도 49재가 7월 19일 입재하여 음력 7월 보름인 9월 5일에 회향합니다.

우란분절은 부처님의 제자인 목련존자가 지옥도에 떨어진 어머니를 천도하기 위해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올리고 부처님과 스님들을 공양하여 어머니를 구했다는 유래가 있는 불교의 중요한 명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가천도에 참여하는 불자들은 기도 기간 중 선망부모와 조상 및 수자령가들을 천도,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사경책을 한 권씩 정성들여 베껴 회향일에 불사르는 의식을 올리게 됩니다. 불자들께서는 모두 수희동참하시어 선망부모의 왕생극락을 기원하시고 크나큰 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b>기 도</b>	이재 8월 1일(음. 6월 10일)	<b>준비물</b>	속옷 - 런닝, 팬티, 양말, 기타
	삼재 8월 8일(음. 6월 17일)		겂옷, 신발(짚신) - 사중애 준비
	사재 8월 15일(음. 6월 24일)		세면도구 - 비누, 치약, 칫솔, 수건, 대야
	오재 8월 22일(음. 7월 1일)		공양미 - 3되3홉 또는 15,000원
	육재 8월 29일(음. 7월 8일)		수자령 - 분유, 배냇저고리, 과자, 유아복, 장난감 등
	막재 9월 5일(음. 7월 15일)		

**재일은 매주 화요일**

**문의 법왕사 766-3747, 9088**

- ※ 동창금은 영가 1위당 1만원입니다.
- ※ 매 재마다 재물(과일, 떡)을 공양하실 분은 중무소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 영혼결혼식 접수받습니다.



영혼결혼식은 생전에 결혼을 못하고 세상을 떠난 젊은 남녀 영혼들을 사후에 저승에서 부부의 연을 맺어주어 사람으로서 마땅히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인 결혼이라는 일생의례를 지나게 해 주는 의식입니다.





Vol. 272호

- 04 깨침의 향기**  
부모님 은혜의 보답은 아무리 빨라도 늦다(2)  
· 원공당 정무 대종사
- 06 비술산방**  
연기법으로 세상을 제대로 보자(1) · 실상 주지스님
- 08 법왕논단**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 본원스님
- 12 불교의 보살들**  
끊임없는 정진으로 고통을 덜어준다
- 16 명찰 순례**  
우리나라 3대 관음성지 중 한곳 오봉산 낙산사
- 20 부처님 십대제자**  
두타행과 육신통으로 세상을 바로 잡다
- 24 해오름 요양원 - 함께 알면 좋아요 I, II**  
무더위를 이기는 방법 · 우정미  
요양원 축탁의제도
- 28 법왕사소식**
- 30 법왕사게시판**
- 32 해오름소식**
- 33 해오름게시판**



월간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 등록일\_2012년 9월 14일 | 등록번호\_대구. 라 07721 | 발행처\_대한불교조계종 법왕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www.bubwangsa.or.kr | 발행일\_불기 2561(서기 2017)년 8월 01일 발행 | 통권\_272호 | 종무소\_T.(053)766-3747·9088 F.(053)767-6095 | 발행 겸 편집인\_실상스님(권오범) | 인쇄인\_강영도 | 편집위원장\_원인스님 | 편집위원\_모도, 영일, 상철, 자행, 자유, 강선옥 | 기획·제작·디자인\_다산미디어 (053)424-3322

법왕지 월간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매달 불제자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더욱 알고 싶고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전해지기를 바라며.

## 부모님 은혜의 보답은 아무리 빨라도 늦다(2)

원공당 정무 대종사



내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보니까 느끼고 깨닫는 점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에 대해서 이것저것 뉘우쳐지는 일도 많고 아쉬운 것도 많습니다. 내 비록 일찍이 부처님의 도를 배웠어도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는 태부족했습니다. 그것은 불교 집안에 효에 대한 가르침이 없어서가 아니라 미처 내가 느끼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배워도 깨닫지 못하면 가슴에 외닿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너나없이 효에 소홀합니다.

아무튼 사람은 누구나 늙으신 부모가 계시면 멀리 돌아 돌아가신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실 때 잘해야지 하고 늘 다짐하면서 삽니다. 요즘 유행어로 “있을 때 잘해!” 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 말은 한갓 우스갯소리나 유행어로 들어 넘길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그것도 부모님에 대해서는 더 더욱 그렇습니다. 머지않아 후회한다는 것을 본인이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차일피일하다가 결국 후회를 하고야 맙니다. 이런 것이 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노사(老死)나 자연사, 존엄사를 하면 내생에 선도(善道)를 보장 받은 것이나 같다고 합니다. 그러나 병사(病死)나 횡사, 내지 비존엄사를 하면 내생에 악도(惡道)나 어둡고 어려운 길을 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살아서 평소 마음을 잘 닦아 죽

음을 편안하게 맞이해야 합니다. 그것은 젊어서 함부로 살지 않고 절에 다니며 설법 듣고 불교 공부하며 일상생활을 조심스럽고 성실하게 살면 됩니다.

티베트 사람들은 물질적으로는 비록 가난하지만 그들의 일상적인 삶은 철저하게 마음을 닦아가며 삽니다. 그들은 누구나 마니차를 돌려가며 항상 염불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는 법사(法師)를 청하여 법문을 설합니다. 부모님이 마지막에 청정일심(淸淨一心)에 안주하도록 가족이나 주변에서 힘껏 도와줍니다.

자식이 부모의 죽음을 맞이해서 가장 효성스러운 일은 존엄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는 일입니다. 법사를 모시든가 아니면 최소한 호스피스에 도움을이라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가족의 임종을 맞이해서는 ‘3가지 엄금사항’은 꼭 지켜드려야 합니다. 즉 우리가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함부로 했던 ‘울고, 불고, 혼드는’ 일을 금해야 합니다. 모시던 분이 운명하시면 으레 목 놓아 울며, 뉘두리를 하며 큰 소리로 불러대고, 육신을 잡고 흔들며 맵니다. 심지어 예전에 조상들은 일부러 곡(哭)하는 사람들을 둔 주고 사서까지 울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불교에서는 조용히 염불을 하거나 설법을 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안심하고 죽음

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어떤 경우에도 그 누구도 해서는 안되는 금기의 불문율입니다.

또 한 가지 엄금사항은 부모님이 운명하시면 최소한 6시간 동안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요즘은 운명하자마다 시신안치실인 냉동고에 바로 넣는데 이는 고인에게 큰 고통을 주는 일입니다. 가능한 한 집에서 임종을 맞게 하고 하루쯤 지난 뒤에 장례식장으로 모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갓 운명하신 부모님의 얼굴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거나 소리를 내어 울부짖거나 육신을 흔들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는 행위는 부모님으로 하여금 죽음을 온전히 맞이할 수 없게 만들어서 결국 큰 고통을 당하게 하는 일입니다. 무지로 인한 어리석은 일입니다. 운명하신 부모님이 그 순간 의식이 혼란스러워지면 바로 앞길에 혼란해집니다. 따라서 이런 일은 가장 금기해야 하는 일이고 동시에 꼭 지켜야 하는 일입니다.

주로 ‘울고, 불고, 혼드는’ 일은 평소 불효자들이 합니다. 그리고 보면 불효자는 끝까지 불효자 노릇을 하는 셈입니다. 문제는 사람이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뭘 몰라서 그러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혜 있는 사람의 말을 잘 들으면 됩니다.<계속>

원공당 정무대중사 열반 3주기 추모 법어집 『인생졸업장』에서

## 연기법으로 세상을 제대로 보자(1)

실상스님 / 법왕사 주지



불교의 교리 가운데서도 가장 근본이 되는 교리는 무엇일까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벗어나 해탈에 이를 수 있는 길을 몸소 깨달음으로 증명하셨고 그 방편을 못 중생들에게 설법하여 누구나 실천만 하면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해탈을 성취할 수 있다고 가르친 팔만사천 법문의 근본 전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맨 처음 깨달은 이 우주의 근본법칙은 바로 연기법(緣起法)이었습니다. 연기법은 간단하게 인과법(因果法)이라고도 하는데 세상의 모든 존재가 인연에 의하여 생겨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를 ‘인연생기(因緣生起)’라고 하고, 줄여서 ‘연기(緣起)’라고도 합니다. 더 알기 쉽게 설명하면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는 것이며 우리의 전래 속담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말과 같습니다. 연기법은 이 우주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이든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절대 법칙입니다.

연기론에 따르면,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모든 사물은 상호관계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라 인연(因緣)이 되면 만나서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다가, 인연이 다하면 흩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인(因)’은 직접적인 원인을 가리키고, ‘연(緣)’은 간접적인 원인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여기 한 그루의 나무가 있다면 이 나무가 생기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그 나무의 씨앗이 될 것이고 간접적인 원인은 흙이나 물, 태양 등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랄 수 있는 주변 조건이 되는데, 전자가 ‘인(因)’이라면 후자는 ‘연(緣)’이 되는 것입니다.

우주의 모든 사물은 이렇게 복잡한 인연의 그물 속에서 생겨났다 사라졌다 하는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인연의 고리들을 인간사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즉, 자신도 모르는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모든 행위의 인과는 서로 얽혀서 선악의 과보를 반드시 드러내게 됩니다. ‘착한 일을 하면 착한 값음이 있고, 악한 일을 하면 악한 값음이 있다.’ 즉, 선인선과(善因善果), 악인악과(惡因惡果)의 법칙은 피할 수 없는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은 원인에 따른 결과이며, 이 결과는 또 다른 결과의 원인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 연기의 법칙에 대해서 누가 만든 것도 아니며 다만 스스로 그 법칙을

깨달았을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연기설에 의하면, 개개의 존재는 자신과 관계를 맺는 전체에 의해 형성되지만, 동시에 개별적인 존재가 모여서 전체를 형성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존재자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세계를 연기의 관점에서 파악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적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므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없어지므로 저것이 없어진다.’

부처님께서 연기설을 설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이 세상을 작동시키는 근본 법칙이기 때문에 연기설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지향하는 궁극 목적인 해탈의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사람이 태어나서 병들고 늙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조건(원인)과 그에 따른 결과를 열두 개의 서로 연결된 고리로 단순화해서 설명하였습니다. 각 고리는 이전 고리의 결과이며 그것은 조건으로 변하여 다시 다음 고리를 만듭니다.(계속)

#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본원스님 / 명상수행원



보잘것없어 보이는 곤충이 하는 짓이, 소똥을 동글동글 굴리어 토양에 거름 뿌리듯 분주히 옮겨 다니며 박테리아가 살도록 흙과 땅을 유기질로 만들면서 먹거리 농산물이 건강하도록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무균일 뿐인, 독한 약냄새나 나는 소똥에 질린 말뚝구리가 떠나면서 농약을 비롯한 각종 환경오염에 노출된 먹거리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여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금생의 육친관계는 전생에 가까운 인연을 기본구도로 짜여져 형성되는 인간관계로써, 다시금 가까운 사이로 맺어지게 마련이다.

이런 경우, 전생의 부부가 금생에 와서 아빠와 딸이 되었다거나, 전생의 연인 사이가 금생에 형제, 자매가 된 사실을 알고 기억할 때, 그에 따른 근친상간의 위험은 늘 상존함은 물론, 그 같은 환경에서 정상적인 교육이란 기대할 수 없는 일일 테고, 내 가족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나와 전생에 가깝게 지냈다는 그것만으로도, 각별한 인연이 가지는 호기심에 눈과 마음이 이끌리면서 쉽사리 행실의 부도덕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되면 본능에만 의존해 사는 말 못하는 금

수보다 나은 게 없는, 어지러운 혼탁의 이수라장이 되버리고 말 것이다.

이 같은 예는 일반 사람들이 전생을 기억하고 아는 데서 야기할 수 있는, 예상 위험요소 부분 중 극히 몇 가지 예를 든 것에 불과하다.

현대심령과학이 입증한 바, 갓 태어나서 머리 정수리가 말랑말랑할 때까지 아기는 자기 전생을 환히 알고 있으나, 말을 배우기 전, 정수리가 굳어지면서 알던 전생을 새까맣게 잊어버린다고 했다. 생각하면 꼭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뼈를 깎는 인고의 수행을 통해 영적인 능력을 지닌 사람일수록 사실은 전생의 관심

이나 기억 따윈, 수행 밖의 일이다. 전생에 대해 인지·인식하더라도 그럴 경우,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까닭은 고통을 부르는 악업의 인과에 어둡지 않아 종교적 윤리·도덕에 반하는 행위일랑 결코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지혜의 눈 뜬 이는 어떤 상황과 여건이 가지는 환경에서도 자기중심(자아)을 지키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연기처럼 곧 사라지며, 안개와 같아 금세 걷히고 말, 미망의 덧일 뿐인, 객관적 현상에 꼬달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치를 두고서 “똑같은 물이라도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어 나오지만, 뱀이 마시면 독이 되어 나온다(牛飲水 成乳, 蛇飲水 成毒)” 고 하였다.

전생을 알고자 하는가?

지금 내가 처한 환경(실정)을 보라.

내생을 알고자 하는가?

지금 내가 하는 짓을 보라.

〈법구경〉

### 탐욕으로 얼룩진 역사의 악순환

직관의 지혜(깨달음)를 추구하는 불교의 관점은 보다 현실적이고 실제적이다.

‘이 세계가 있으므로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으므로 세계와 그 존재이유가 있다’는 주체적 시각의 확신에 찬 자기공정

은, 허상과 모순이 껍질로 이루어진 가아(假我)를 벗기고 또 벗기며, 거듭 나를 부정함으로써 본래 자리인 진아(眞我)를 발현, 드러내고자 한 의지적 표명이다.

“연기를 보면 법(진리)을 보는 것(이해)이고, 법을 본다는 것은 곧 연기를 보는 것이다(若見緣起 便見法, 便見法 若見緣起).” 초기 경전에 나오는 이 구절은 연기법이 곧 불법의 대의(大義)임을 극명하게 가리킨다. 연기법을 근간으로 한 부처님이 깨달은 중심사상은 더욱 분명해진다.

‘나는 원인을 논하고 원인에 대하여 말한다. 원인이 있고 관계가 있어 세계가 이루어지므로 원인이 있고 관계가 있어 이루어지는 세계라고 말한다. 원인이 있고 관계가 있어 세계가 소멸하므로 원인이 있고 관계가 있어 세계가 소멸한다고 말한다.’

〈잡아함 제55경〉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를 자원으로 사용하면서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의 환경 파괴로 이어지며 그로 인한 지구촌은 전례 없는 기상이변으로 호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겨울 60년만에 혹독한 한파가 찾아왔고 봄의 길목, 3월 초순엔 초여름 기온인 섭씨 28도까지 올라가 덥다가 다음날 다시 전국이 영하권으로 급강하하는 추위에 사

랍들은 몸 둘 바를 모를 만큼 날씨는 극성을 부렸다.

하룻밤 사이, 겨울에서 여름으로 다시 겨울과 여름이 교차하며 왔다 갔다 하는 변덕스런 날씨 탓에, 그때마다 애꿎은 우리 몸뚱이만 거기에 적응하느라 애를 먹는다. 이리다 에어컨과 난방을 동시에 가동해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유기적으로 상호의존하며 맞물린 자연 상태의 환경 생태학의 중요성을 두고, 일찍이 히포크라테스는 광합성(光合成 : 햇빛, 공기, 바람)이 오염되면 지구가 병들면서 자연에 의지해 사는 인간도 질병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 산업화는 생태계의 연기적 관계마저 파괴

오래 전에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며 대자연이 부르는 재앙에 직면한 것이다. 연기법적 관점에서 천년 앞서 만년을 헤아리며 탁월한 통찰력에 빛나는 신라 의상대사의 <법성계(法性偈)>에서도 그 뜻이 잘 드러나고 있다.

“하나 속에 전체가 들어있는가 하면 전체는 개체적 하나로 이어지며, 한 티끌은 곧 서방세계를 머금은 즉 일체의 낱알 티끌 또한 이와 같음이라.(一中一切多中一 一卽一切多卽一, 一微塵中含十方 一切塵中亦如是)” 생태계는 상호 유기적인 관계로 맞물린 부단한 연기적 관계를 이루고 있다. 몇 가지

예로써, 그 중 하나가 처리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물 폐기물(폐혁공장에서 나오는 중금속과 가축 털과 오물)이다.

가난에서 벗어나 먹고 살만해지면서 육류 소비가 크게 늘어나 수도권 일대에 대규모 도축장 시설과 가축공장이 들어섰고, 그로 인해 토양오염이 갈수록 심각해지자 대책을 찾은 것이 1988년부터 시작된 해양 투기였다. 울산, 인천 등지에서 하루 수천 톤씩 공해상에 갖다 버리는 데는 기존의 처리방식에 비해 1/4이나 저렴한 비용이 든다는 점도 한몫했다.

드넓은 푸른 바다에 아무리 갖다버려도 전혀 문제될 일이 없다는 게 해수부 관계자들의 생각이었던 듯하다. 하지만 무한정 받아들이는 것 같은 바다도 과도한 쓰레기 오염을 수용하기가 벽차 한계가 있음을 드러낸 건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90년대 후반 들어서다. 어민들의 그물에 걸려 올라오는 어패류(특히 갑각류 내장)에 축산물 찌꺼기가 묻어나오며, 여기엔 메탄올, 벤젠, 카드뮴 등의 발암물질이 검출되었고, 이에 어민들은 수 년을 두고 관계 당국에 축산물 찌꺼기 해양 투기 반대 항의를 하면서 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은 2012년부터다.

같은 이치인 또 하나의 예로써, ‘소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고 하는 옛말은 이제 이렇게 고쳐 써야 할 일이다. ‘소똥이 없는데 아니라, 더 이상 약효가 없다’고.

왜냐하면 까다롭게 길들어진 소비자의 입맛에 따라 한우의 육질을 부드럽게 하여 상품성을 높이고자 별난 사육방식으로 성장 촉진 호르몬 주사를 쬐고, 화학 첨가물이 든 영양사료를 먹이며, 수시로 면역성 항생제를 투여하면서부터 소똥에 기생하던 미생물이 사라져 버렸다. 약의 독성 탓에 미생물이 못 사는 소똥에는 말뚱구리가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자, 사라져 버린 것이다.

필자가 초등학교에 다니던 1960년대, 입학식 때면 아이들은 하나 같이 한쪽 가슴에 이름표 겸 코흘리개 손수건을 달았다. 아이들 거의가 영양실조에 걸린 듯 누런 콧물이 달아 흐르고, 단백질 부족에서인지 머리 여가저기에 부스럼이 나곤 했다.

그 당시 배고픈 시절을 달래듯 즐겨 부르던 동요 비슷한 가사 가락이 있다.

“다 같이 돌아~ 동네 한 바퀴~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한 바퀴~  
  
길동이네 집에도~ 콩동보리밥 ~  
옹기종기 둘러앉아~ 밥을 먹는다~  
보리밥 먹는 사람~ 신체 건강해~”

그러니까 한을 곱씹을 만큼 빈곤에 허덕이던 보릿고개, 춘궁기 시절이 지난 것은 불과 반 세기도 안 된다.

3천만 인구에 전체 쌀 생산 360만톤(68년

농림부 자료)은 턱없이 부족한 식량 사정이기에 잡곡, 혼식을 권장하는 것이 산이제한과 함께 주요 국가시책 중 하나였다.

그러다가 70, 80년대 들어 영농의 발달과 라면 등 부식류가 생산되고, 산업 근대화로 국민소득이 증대하면서 여유 비축미가 쌓이며 ‘흰 쌀밥에 고깃국’ 먹고 싶은 소망이 오히려 너무 잘 먹어 오는 병, 영양과다로 인해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 가운데 식생활 개선으로 채식 붐이 일다가 이어서 살 빼는 다이어트 선풍에 휩싸이는가 싶더니 근래에 와서는 웰빙(양질의 삶) 열풍이 불었으며, 요즈음은 힐링(마음치료)에 대한 관심들이 부쩍 높아가는 추세다.



## 끊임없는 정진으로 고통을 덜어준다

보살은 보리살타의 준말이다. '깨달음을 구해서 수도하는 중생', '구도자', '지혜를 가진 자' 등으로 풀이된다. 보살은 스스로 깨달음을 이루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머물고 있다. 그것은 바로 일체 중생을 깨달음의 세계에 도달하도록 제도하기 위해서이다.

보살은 수행의 단계에 따라 계위(階位)가 주어진다. 초발심(初發心)은 최초 단계로 진리를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행도(行道)는 번뇌의 속박에서 벗어나려고 수행하는 단계이다. 불퇴전(不退轉) 단계는 수행으로 도달한 경지에서 물러나거나 수행을 중지하는 일이 없음을 말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생보처(一生補處) 단계로 한 생이 끝나면 다음에는 부처가 되는 것을 말한다. 보살은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서원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가 쌓은 선근공덕(善根功德)을 남을 위하여 헌신하는, 불교에서는 부처님 다음으로 소중한 존재이다.

### 보현보살(普賢菩薩)

범어로는 사만타바드라(Samantabhadra), 비슈바바드라(Visvabhadra)이며 변길(遍吉), 보현(普賢) 등으로 번역된다.

문수보살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좌보처로서 지혜를 상징하는 것에 비해 이 보살은 우보처로서 행원을 상징한 보살로 유명하다. 여래의 지덕(智德)과 체덕(體德)이 지혜라면, 여래의 이덕(理德)과 정덕(定德)과 행덕(行德)은 실천행이다.

항상 문수보살과 함께 행동하며 중생을 교화한다. 중국에서 그 유명한 한산(寒山)과 습득(拾得)의 출현을 바로 문수와 보현

의 화현으로 보는 것도 이들 보살이 항상 짝으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보현보살은 중생들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덕을 지녔으므로 보현연명보살 또는 연명보살이라고도 한다. 형상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다.

즉 흰 코끼리를 탄 모습과 연화대에 앉은 모습이다. 대체로 전자의 모습이 많이 알려졌다. 코끼리는 이가 6개로 경전에서 설해지고 있는 육아백상(六牙白象)이다. 대체로 합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나, 혹 오른손은 여의인(如意印)으로, 왼손은 여원인(與願印)으로 무드라(印)를 맺고 있기도 하다. 이 경우



보현보살

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협시불로 있을 때이다. 그리고 연화대에 앉은 모습은 진언밀교에서 표출시키고 있는데, 밀교에서는 금강살타와 같이 생각하여 태장계만다라의 중대팔엽원(中臺八葉院) 남동쪽 끝에 두며, 왼손에는 연꽃을 들고 그 위에 칼을 세웠으며 오른손은 삼엽묘선(三葉妙善)의 인(印)을 지니고 있다.

〈화엄경〉에서는 선재동자의 스승으로 등장하는가 하면 그분의 행원을 찬탄한 내용으로 〈보현행원품〉이 따로 편찬되기도 하였다. 이 보살의 행원은 모두 열 가지이며 그 내용은 불보리를 구하는 일과 중생을 교화하는 일이 중심을 이룬다. 특히 자신의 공덕

을 내세우지 않으며 시나브로 지은 공덕을 모든 중생들과 진리에 회향한다는 나눔의 실천을 강조한 보살이다. 우리나라의 각 사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예불문에서는 문수사리, 관세음, 지장과 아울러 행원보살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지혜의 문수사리, 자비의 관세음, 원력의 지장, 실천의 보현을 일컬어 사대보살(四大普薩)이라 한다.

### 부사의혜보살(不思議蕙菩薩)

불가사의한 지혜를 지닌 보살로 범어로는 아썬트야마티닷타(Aci-ntyamatidatta)이며 현도태장계만다라(現圖胎藏界曼荼羅) 제계장원(除蓋障院) 가운데 9존이 있고 그 중앙에 안치한 보살이다.

이 보살은 방편과 실재가 본래 둘이 아닌 부사의한 지혜를 중생들에게 시여하여 중생들의 지혜 없음을 끊고 제거하고자 하는 본서(本誓)를 품고 있는 보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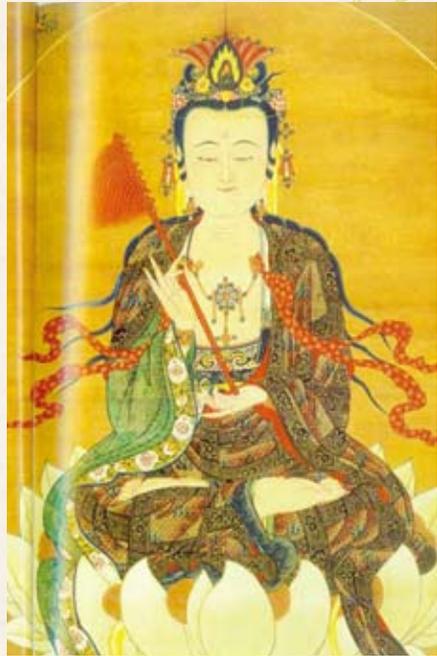
이 보살의 진언은 〈대일경〉 제2 보통진언 장품에 나오는데 ‘나무 삼만다 움’이다. 이 부사의진언 ‘우’는 무생삼매에 극하였다. 다만 법문에 약간의 차별이 있을 뿐, 제법이 필경에는 평등함을 알기 때문에 능히 갖가지 번뇌 악업으로 여래의 사업을 삼아 무간지옥 속에서 삼선(三禪)의 법락을 받으므로 부사의 해탈문이라고 한다. 만일 이러한 해탈문에 들어갈 수 있다면 설사 오랫동안 생사에 처하더라도 언제나 염증을 내거나 나

태한 생각을 내지 않는다고 한다. 만일 이러한 해탈문에 들어갈 수 있다면 설사 오랫동안 생사에 처하더라도 언제나 염증을 내거나 나태한 생각을 내지 않는다고 한다. 즉 종자(種子) 우(u)가 진언과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

밀호는 난측량금강(難測量金剛)이며 삼매야형은 보주형(寶珠形)이다. 형상은 온몸이 황백색이다. 오른손은 손바닥을 세워 오른쪽 사선으로 향하게 하고 무명지와 소지를 구부리고 엄지는 무명지를 눌러 이른바 검인(劍印)을 맺었으며 왼손은 주먹을 쥐되 연꽃 위에 여의주를 올려놓은 지물(指物)을 지니고 있다.

〈대일경〉 제4 밀인품(密印品)에 이 보살의 인계와 진언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그에 의하면 이 보살은 지혜의 손 즉 오른손으로 진다마니보형(진다마니보형)을 집지하고 있다. 이는 부사의한 지혜를 상징한다. 그 진언은 ‘나무 삼만다 못다남살마사 발리포라 사바하’라 한다.

〈대일경소〉 제13의 해설에 의하면 이 진언은 여의주와 같다. 일체 중생의 뛰어난 원(願)을 만족시켜 주는 의미를 지닌다. 즉 이 부사의혜보살이 지니고 있는 여의주 연꽃과 종자, 진언이 모두 부사의하여 어떠한 중생, 어떠한 장소 모두 원만하게 원을 만족시켜 주는 일을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보살이지만 항상



상정진보살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다.

### 상정진보살(常精進菩薩)

〈법화경〉 법사공덕품 제19와 〈심지관경(心地觀經)〉 아란야품 제5 그리고 〈아미타경〉 등의 창법대중으로 등장하는 보살이다.

천태대사가 저술한 〈법화문구〉 제10권에 ‘이제 상정진에 대하여 말한다면 곧 십신(十信)의 제3십이다’ 라고 해석하여 상정진보살의 행위(行位)는 52위(位)의 계위 가운데 십신의 제3위인 정진심(精進心)의 위에 있다고 한다. 52위란 〈보살영락본업경〉에 설해진 대승보살의 52단계의 수행의 계위를 말한다.

10신(信), 10주(住), 10행(行), 10회향(回向), 10지(地)의 계위를 합한 것이다. 보살의 계위는 이밖에도 <법망경> <화엄경> <인왕경> 등에 40위, 41위, 51위 등이 설해지고 있다. <보살영락본업경>에 설해진 10신위는 신심(信心), 영심(信心), 정진심(精進心), 혜심(慧心), 정심(定心), 불퇴심(不退心), 회향심(回向心), 호법심(護法心), 계심(戒心), 원심(願心)이다. 즉 다시 말해서 정진심의 위는 52위 가운데 제3위로서 불퇴전의 마음의 단계까지도 오르지 못한 자리다. 적어도 불퇴전의 위치에 올라야만 보살이라 할 수 있다.

52위에 대해 별교(別敎)와 원교(圓敎)의 입장이 다르다. 별교에서는 10회향 이하를 범(凡)이라 하고 초지(初地) 이상을 성(聖)이라고 한다. 또한 범 가운데서도 10신을 외범(外凡)이라 하고 10주, 10행, 10회향을 내범(內凡) 또는 삼현(三賢)이라고 한다. 범부 중에서도 내범에 들지 못한 외범, 그 외범에서도 이제 겨우 세번째 단계에 오른 이를 어떻게 보살이라고 할 수 있을까.

바로 이 상정진보살은 중생들의 그러한 의문을 해결해 주기 위해 출현한 보살이요, 항상 정진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바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첩경임을 몸소 가르쳐 주는 보살이다. 상정진이란 항상 끊임없이 정진하는 보살이라는 뜻이다. 정진이란 어떠한 큰 위치만을 내세우며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것을 가리지 않고, 가장

가깝고 가장 작은 것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 마음으로 노력하는 것이다.

<법화경>의 가르침을 듣고 믿음을 내는 가르침을 이웃과 사회에 전하는 이가 바로 상정진보살이다.



## 우리나라 3대 관음성지 중 한곳 강원도 양양 오봉산 낙산사

낙산사는 금강산, 설악산과 함께 관동 3대 명산으로 꼽히는 오봉산 자락에 있는 사찰이다. 오봉산(五峰山)은 낙산이라고도 한다. 낙산은 관동팔경의 하나이다. 관음보살이 설법을 펼치며 항상 머무르는 곳을 이르는 보타낙가산에서 유래했다. 산스크리트어 보타낙가는 관세음보살이 항상 머무르는 곳이라는 의미이다. 오봉산이 병풍처럼 두르고 앞으로 푸른 동해가 넘실거리는 낙산사는 해변에 위치한 특이한 구조를 갖춘 사찰로, 우리나라 3대 관음기도도량 중의 하나이다. 3대 관음성지는 낙산사 흥련암과 함께 강화도 보문사, 남해군 금산 보리암이다.



원통보전과 7층 석탑



관음보살이 붉은 연꽃을 타고 솟아올랐다는 흥련암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 본사인 신흥사의 말사인 낙산사(강원도 양양군)는 신라시대 고승인 의상(義湘)대사가 671년(문무왕 11) 관음보살의 계시를 받고 창건했다고 전한다.

의상은 당나라에서 귀국하자 관세음보살의 진신(眞身)이 낙산 동쪽 바닷가 굴속에 있다는 말을 듣고 친견하기 위해서 찾아갔다. 바닷가 절벽 위에서 여러 날을 기도하자 용의 무리와 하늘나라의 사람 등 8부신장이 굴속으로 그를 인도하였다. 공중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고 수정염주 한 꾸러미를 받아서 나오는데, 동해의 용이 여의보주(如意寶珠) 한 알을 다시 바쳤다. 의상은 이들을 가지고 와서 다시 7일 동안 재계하여 기도한 뒤 관세음보살의 진신을 보았다. 관세음보살이 이르기를 “좌상(座上)의 산꼭대기에 한 쌍의 대나무가 솟아날 것이니, 그 땅에 불전을 짓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하였다. 이에 의상은 그곳에 금당을 짓고 관음

상을 만들어 모신 뒤 절 이름을 낙산사로 정하고, 그가 받은 두 구슬을 성전(聖殿)에 모셨다. 훗날 의상대사가 수도한 절벽 위에 정자를 세워 의상대(義湘臺)라 불렀고, 관음보살이 바다에서 붉은 연꽃을 타고 솟아오른 자리 옆에 절을 지어 흥련암(紅蓮庵)이라 했다.

창건 이후 원효(元曉)대사도 관세음보살을 친견하기 위하여 이 절을 찾았는데, 원효가 절에 이르기 전에 관세음보살의 화신을 만나게 되었지만 알아보지 못하였고, 낙산사에 가서도 풍량이 심해 관세음보살이 상주하는 굴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설화가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다.

낙산사는 858년(헌안왕 2)에는 사굴산과의 개산조 범일(梵日)대사가 이곳에서 정취보살(正趣菩薩)을 친견한 뒤 낙산 위에 3칸의 건물을 지어 불상을 봉안하였다. 이후 여러 차례, 화재로 소실된 것을 다시 복구하





동양 최대의 해수관음입상

도 보물 제1723호로 지정되어 있다.

동종은 조선 초기인 1469년 만들어졌다. 보물 제479호이다. 높이가 158cm, 입지를 98cm으로 조선시대 종으로는 비교적 큰 편이며 신라와 고려 종의 구조나 표현양식을 벗어나 조선 초기에 형성된 특징을 보여주며, 장식과 형태가 아름다운 걸작이라는 평이다. 안타깝게도 2005년 산불로 소실된 것을 2006년 새롭게 복원했다.

보물 제499호인 7층 석탑은 고려시대의 석탑양식을 띄고 있는 조선시대에 건립된 석탑이다. 높이가 620cm로 원통보전 앞에 있는데 부분적인 손상은 있으나 상륜부까지

완전한 형태로 남아 있다. 7층 석탑은 창건 당시 3층이었던 것을 1468년 중창 때 7층으로 개축했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2005년 화재 때, 7층 석탑의 일부가 손상되었다.

이외에도 홍예문(강원도유형문화재 제33호), 원장(강원도유형문화재 제34호), 흥련암(강원도유형문화재 제36호), 사리탑(강원도유형문화재 제75호) 등이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홍예문은 반월형의 문루(門樓)인데, 낙산사 입구에 세워져 있다.

낙산사를 중심으로 낙산팔경이 전해지고 있는데 첫째는 낙산사의 저녁 종소리, 둘째는 설악에서 바라본 저녁노을, 셋째는 광석의 한밤중 다듬이 소리, 넷째는 기동에서 피어오르는 저녁밥 짓는 연기이고 그외 나머지는 동해 모래사장에 내려오는 기러기떼, 망월대 앞 돛단배, 남대천의 물줄기, 망월대에서 바라보는 가을달의 정취를 말한다. 그 중에서도 으뜸은 낙산사 저녁 종소리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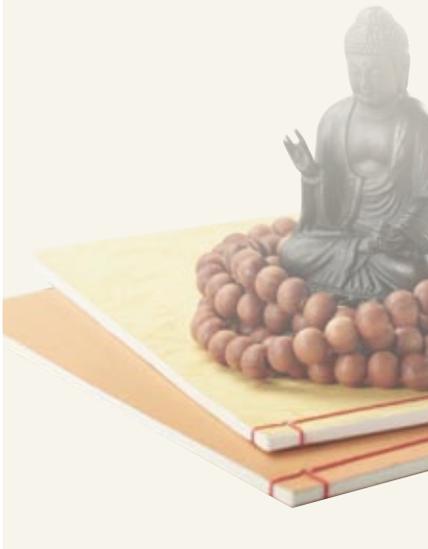
찾아가는 길



대구에서는 중앙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만중분기점에서 영동고속도로를 갈아탄 뒤 양양분기점에서 새로 개통된 서울양양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방법과 춘천분기점에서 서울양양고속도로를 타고 낙산사까지 가는 방법이 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동해를 거슬러 올라가는 7번 국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볼거리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다.

## 두타행과 육신통으로 세상을 바로 잡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득도 후 열 명의 뛰어난 제자를 거두어 가르치셨습니다. 이 열 분의 제자들을 각기 자신만의 특기와 개성으로 부처님의 다양한 덕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열 분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 번 새겨봅니다.



### 마하가섭

인도의 마가다국 왕사성 근교의 바라문촌에 핏파리라는 이름을 가진 한 청년이 있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종교심이 많았지만 그의 부모님은 그에게 결혼할 것을 권한다. 처음에는 단호하게 거절하던 그도 마침내 한 가지 타협안을 내놓는다.

즉 핏파리는 순금으로 실물 크기의 예쁜 여성상을 만들게 해, 이러한 이상적인 여성이라면 결혼을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행운이지, 불행인지 꼭 닮은 여성이 있었던 것이다. 황금상 그 자체를 약혼 선물로 하여, 핏파리의 부모는 서둘러 결혼을 시키려고 청혼을 했다. 여성의 부모도 기꺼이 승락을 하였다. 핏파리는 20세였고, 아리따운 아내는 16세의 바들러였다.

### 석존과의 만남

청년 핏파리의 양친은 돌아가셨고 그의 나이 32세가 되었다. 핏파리는 밭에서 일하고 있었다. 쟁기로 파놓은 흙더미 속에서 한 마리의 작은 벌레가 머리를 내밀자 공중에서 작은 새가 내려와 그 벌레를 탁 쫓아 가지고 다시 날아간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핏파리는, 순간 자신이 간접적으로 살생의 죄를 범했음을 느끼고 깜짝 놀랐다. 그리고 출가할 결심을 확고히 굳히는 것이다.

아내인 바들러도 뜰에다 참깨를 넣어 팔리고 있었다. 마침 작은 새가 날아와 참깨



마하가섭

위에 기어가고 있는 벌레를 쫓아 먹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간접적으로 살생의 죄를 범한 것을 알고, 출가할 것을 굳게 다짐한다. 두 사람은 함께 출가한다. 같은 길을 가다 남녀가 함께 있는 것은, 수행자로서 걸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갈림길에서 바들러는 왼쪽 길로, 핏파리는 오른쪽으로 간다. 오른쪽 길로 든 핏파리는 거기서 석가모니 스승을 만나게 된다.

핏파리 부부가 출가하던 순간에 대지가 진동을 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석가모니는 그의 출가를 알고, 그가 오는 길을 미리 알고 나무 아래에서 좌선을 하며 기다리고 계셨다. 지나가는 핏파리에게, “마하가섭이여,

이리 와서 앉는 것이 좋겠다”며 석가모니쪽에서 먼저 부르셨다고 한다. 핏파리, 즉 마하가섭도 나무 아래에서 좌선을 하고 있는 석가모니를 본 순간, 이 사람을 쫓혀 두고 달리 내가 귀의할만한 스승은 없다고 깨달았던 것 같다.

이리하여 석가모니에게 귀의한 마하가섭은 스승의 교설을 금방 이해했던 것이다. 일설에 의하면, 그는 스승을 만난 후 8일 후에 깨달음을 얻고 아라한(성자)이 되었다고 한다. 그는 또 석가모니의 의발을 물려받은 인물이다. 즉 후계자가 된 것이다.

## 두타행

마하가섭은 ‘두타 제일’이라 일컬어지고 있다. 두타란, 의·식·주에 대한 집착의 마음을 떨쳐 버리기 위한 수행 실천을 말하는 것이다. 두타의 실천 항목으로는 열두 가지가 있는데, 예로부터 그것을 ‘십이두타행’이라고 한다.

### | 십이두타행 |

- 1 재아란약처(在阿蘭若處)  
마을과 떨어진 산림에서 산다.
- 2 상행결식(常行乞食)  
언제나 탁발결식에 의해서 생활한다.
- 3 차제결식(次第乞食)  
결식을 하는데 있어서 집의 빈부를 가리지 않는다.
- 4 수일식법(受一食法)  
하루 한 끼만 먹는다.

**5 절량식(節量食)**

많이 먹지 않도록 양을 절약한다.

**6 중후부득음장(中後不得飲漿)**

중식 이후에는 음료(국물)를 마시지 않는다.

**7 착폐납의(着弊納依)**

폐물인 누더기로 만든 옷을 입는다.

**8 단삼의(但三依)**

세 개 옷밖에는 갖지 않는다.

**9 총간주(塚間住)**

무덤 사이에서 산다.

**10 수하지(樹下止)**

나무 아래에서 산다.

**11 노지좌(露地坐)**

한 곳에 앉아 지낸다.

**12 단좌불와(但坐不臥)**

언제나 앉아 있고 드러눕지 않는다.



아나울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욕망을 버리고 나선 금욕의 성자상이다.

### 아나울

아나울은 석가모니와 마찬가지로 석가족의 출신으로서, 부귀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아나울은 형제가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형제에게 출가의 결심을 이야기했다. 아나울의 결심을 들은 형제 또한 출가의 결심을 굳히고 있는 터였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출가를 하면 가계를 이을 사람이 없게 됨으로, 의논 끝에 아나울만 출가하고 그 형제는 집에 남기로 했다.

아나울은 마침내 어머니에게 출가를 승락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절

대로 출가를 승락하지 않았다.

“죽어도 내 자식을 내 놓을 순 없어. 하물며 살아 있는 자식을 집을 나가게 하다니! 무슨 소리냐?”

이것이 그의 어머니의 진심이었다.

“그렇다면 내 자식이, 만일 밧디야가 출가를 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너한테도 출가를 허락해 주지.”

아나울은 그때부터 밧디야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밧디야는 석가족 중에서도 명문 귀족이었으며, 이미 정치적으로 좋은 지위에 올라 있었다. 어머니는 설마 그런 밧디야가 출가할 리는 만무하다고 생각한 것인데, 결국 아나울의 열의가 밧디야의 마음을 움

직이고 말았던 것이다.

아나올과 밧디야, 거기에 다섯 친구를 합해 모두 일곱 사람이 동시에 출가했다. 이 중에는 십대제자로 꼽히는 아난타와 우바리도 있었으며, 데바닷타 또한 이때 같이 출가를 했다.

### 아나올의 심안

기원정사에서서의 일이었다. 그때 석존은 기원정사의 강당에서 설법을 하고 계셨다. 청중들은 출가자만이 아니었고 재가의 사람들도 있었던 모양이다.

석가모니의 설법을 들으면서, 기분이 좋은 듯 지그시 눈을 감고 좌수를 하고 있는 승려가 있었다. 그가 바로 아나올이었다. 그를 슬쩍 흘겨보고는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다. 석가모니는 재빨리 그것을 눈치채셨다.

“설법을 들으면서 기분 좋게 잠을 잔다. 그것도 좋겠지.”

석가모니는 사람들 앞에서는 아나올을 별로 나무라지 않았다. 그렇지만 범좌가 끝난 다음, 석가모니는 아나올만 불러 조용히 충고했다.

“아나올이여, 그대는 도를 찾아 출가한 것이 아니었던가. 출가를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대가 설법을 들으면서 선잠을 자다니, 도대체 그 최초의 결심은 어디로 간 거지. 정신이 해이되었다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는군, 그래.”

아나올은 석가모니 앞에 납작 엎드렸다. 스승의 날카로운 지적에 그는 마음의 눈이 번쩍 뜨였다.

“분명히 내 마음이 해이된 탓입니다. 오늘 이후로 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가령 이 몸이 썩어 부서질지라도 세존 앞에서 절대로 자는 일이 없을 겁니다.”

아나올은 잠과 싸우기 시작했다. 잠을 거부할 것을 맹세한 아나올의 눈은, 감겨질 줄을 모르고 언제나 초롱초롱 빛나기만 했다. 의사에게 치료를 부탁했으나 백약이 무효였다. 그리하여 아나올은 눈동자만 멍뚱멍뚱 뜬 상태로 시력을 완전히 잃고 말았다. 그는 결국은, 육체의 눈은 잃어버렸지만 그 대신 범(진리)의 눈인 ‘천안(天眼)·심안(心眼)’을 얻었던 것이다.



# 무더위를 이기는 방법



'대프리카(Dfrica)'라는 말을 아십니까? 대구의 여름 날씨가 워낙 유명하다보니 온라인상에서 '대구(Daegu)'와 '아프리카(Africa)'라는 단어를 합성해서 만든 말입니다. 그만큼 대구의 여름이 아프리카만큼 덥다는 뜻이겠지요. 사실 매년 여름만 되면 올 여름을 어떻게 넘길까 하고 고민과 함께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전기료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할 만큼 대구의 여름은 악명이 높습니다.

이런 무더위와 습한 기운이 온 몸을 감싸다 보니 직장인들은 업무의 효율이 떨어지고, 학생들은 공부하기가 힘이 들고, 열대야로 피곤은 더더욱 늘어만 가는데요. 그렇다고 출근을 안 할 수도 없고 공부를 포기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런 무더위와 열대야의 덥고 습한 날씨를 견디고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 첫째,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냉방기기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에어컨이나 선풍기 같은 냉방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여름나기는 무엇보다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냉방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우선 추천합니다. 혹여나 전기료를 아낀다고 무조건 더위를 견디다보면 더위를 먹는다가나 일사병이나 열사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더운 한 낮이나, 열대

야의 경우엔 타이머로 2시간이 넘지 않도록 세팅을 하는 등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과도하게 냉방기기를 사용한다면 충격적인 전기료 고지서와 냉방병에 걸릴 수 있으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에어컨이나 선풍기 말고도 다른 여름나기 용품도 있으니 잘 검색해보시고 구입하시기를 바랍니다.

## 둘째, 더위라는 것 자체가 우리 신체에 많은 피로를 주기 때문에 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적절한 체력을 길러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땀벌에서 더위를 먹음 만큼의 과도한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니라 가벼운 스트레칭 등으로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가 좋습니다. 특히 중간 중간 충분히

물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운동을 하고 차가운 물이 아닌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해주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 셋째, 알코올은 더위에 큰 장애요소입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체온이 상승하게 되어 안 그래도 더운 여름을 더 덥게 만듭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덥다고 시원한 맥주를 벌컥 벌컥 들이키는데, 이걸 그때 잠깐뿐이지, 맥주를 마신 이후에는 더 더운 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 넷째, 열대야에서는 너무 더워서 잠이 오지 않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는데, 열대야를 이기는 방법 중 하나로 무기질을 섭취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무기질을 섭취할 경우 체내의 멜라토닌을 늘려 숙면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무기질이 많은 음식으로는 체리, 바나나, 토마토, 옥수수, 콩, 두부, 참깨, 우유, 치즈, 어패류, 육류, 푸른잎 채소 등이 있습니다.

### 다섯째, 카페인 섭취를 줄이시길 바랍니다.

나는 커피를 마셔도 잠이 잘 온다는 분도 계신데, 날이 더운 여름 커피, 홍차, 콜라 등과 같이 카페인이 다량 있는 음료를 마실 경우 잠을 쉽게 자기 어렵기 때문에 카페인을 줄여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을 추천해드

립니다.

### 여섯째, 가볍고 통풍이 잘 되는 옷차림을 하는 것도 더위를 이기는 기본방법입니다.

멋지게 차려 입는 것도 좋겠지만 여름에는 여름에 맞는 옷차림을 하는 것이 시원한 여름을 나는데 도움을 줍니다. 물론 그렇다고 타인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지나치게 가벼운 옷차림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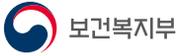
### 일곱째, 습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도는 우리가 생활하는데 불편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이기도 합니다.

이런 습도를 줄이는 방법으로 에어컨이나 제습기 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기를 제외하고 섯이나 소금, 베이킹 소다는 습기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제습의 용도로 사용되곤 합니다.

덥고 불쾌지수가 높은 여름, 너도나도 짜증이 쉽게 나지만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한다면 올 여름 무더위도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열대야와 더위를 이기고 숙면하여 하루하루 활기찬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글 · 우정미 / 사회복지사



## 요양시설 축탁의 제도



보건복지부는 요양시설 내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축탁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2017년 개정변경안으로 축탁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축탁이란?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노인복지시설 운영기준)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에는 노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인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를 두고 간호사 및 기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가 수행토록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요양시설은 축탁의를 지정해야 하며, 축탁의는 매월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 노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축탁의 지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기존에는 노인요양원의 시설장이 직접 지명하였지만 변경된 방식은 각 지역의 사협회 지부의 추천을 요청하여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의료서비스가 강화되어 가는 요양시설은 어르신별 건강맞춤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어 더욱 더 질 높은 수준으로 어르신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축탁의 진찰 서비스를 받을 경우, 기존에 납부하던 시설 이용 본인부담금과는 달리 축탁의 진찰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별도로 시설에 납부해야 합니다. 어르신 및 보호자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촉탁의가 요양시설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어르신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한 분 한 분 성의 있게 진찰해 드립니다. 🗨️



**01** 촉탁의는 요양시설 이용 어르신의 주치의입니다.

의사, 한의사, 치과외과사가 매월 정기적으로 시설을 방문하여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관리해드립니다.



**02** 의료서비스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촉탁의 진찰비용 중 80%는 공단(장기요양보험), 20%는 어르신이 지급하도록 하여 부담 없는 의료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03** 병원에 안 가셔도 처방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약품 처방만을 위해 병원에 직접 가실 필요 없이 촉탁의가 진찰 후 필요 시 처방전을 발급해드립니다.

촉탁의 선생님이  
오셔서  
이런 점이 좋아요!



어르신

“병원에 입원하지 않더라도, 촉탁의 선생님이 방문해주시니 걱정이 없어요.”



보호자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가려면 휴가를 내고, 구급차 비용도 7만원을 부담했었는데, 이런 부담이 줄었어요.”



간호(조무)사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고혈압, 당뇨 등 약 처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처방전 발급비용  
안내

구분	본인부담금		
	일반 (20%)	감경/ 의료급여수급권자 (10%)	기초 수급자 (0%)
재진(10,620원)	2,120원	1,060원	무료
초진(14,860원)	2,970원	1,480원	무료

\* 처방전 발급비용은 별도 부담해야 합니다.

\* 2017년 이전에는 진찰 여부에 관계없이 어르신이 부담하는 시설 이용료에 촉탁의 비용이 포함되었으나, 앞으로는 진찰 건마다 납부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법왕사 소식

## 정유년 윤5월 생전예수재 회향



정유년 윤5월을 맞이하여 지난 5월 31일 입재한 생전 예수재 49일 기도법회가 7월 18일 회향하였습니다. 생전예수재란 윤달이 드는 해에 사후에 치를 49재를 살아생전에 미리 닦는 법회로 크나큰 공덕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불교의 고유한 의식으로 생전의 죄업을 참회하고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법회로 이번에 3백50여 불자들이 동참하여 49일 동안 정성스럽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 정유년 백중 합동 영가천도재 입재



법왕사에서는 지난 7월 19일 백중(우란분절) 영가천도 49재를 입재하여 9월 5일 회향합니다. 우란분절은 부처님의 제자인 목련존자가 지옥도에 떨어진 어머니를 천도하기 위해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올리고 부처님과 스님들을 공양하여 어머니를 구했다는 유래를 가진 불교의 중요한 명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가천도에 참여하는 불자들은 기도 기간 중 선망부

모와 조상 및 수자령가들을 천도, 극락왕생을 기원합니다. 불자들께서는 수회 동참하시어 선망부모의 왕생극락을 기원하시고 크나큰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 생전예수재 회향 기념 삼사순례 봉행



법왕사에서는 지난 7월 20일 생전예수재 회향 삼사순례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이번에 참배한 삼사는 경남 하동의 쌍계사와 칠불암, 전남 구례의 연곡사로 2백여 불자들이 삼복더위에도 아랑곳 않고 동참하여 뜨거운 불심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참배한 이들 도량은 우리나라 불교에서 매우 중요하고 유서 깊은 곳으로 국보와 보물 등 문화재도 많이 보유하고 있어 불자들에게 아주 뜻깊은 참배가 되었습니다.

## 오백나한 1차 2백불 점안 예정



법왕사 대적광전 후불단에 조성 중인 오백나한 1차 2백불 점안식이 백교좌법회 회향일에 열립니다. 오백나한 조성불사는 현재 진행 중이며 많은 불자들이 동참

하고 있는데 5백위로 한정되어 있는 만큼 동참하실 불자들은 하루 속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법왕사 중심문도회 수현당 49재

법왕사 중심문도회 수현당 스님의 49재 3재가 지난 7월 21일 법왕사 불자들과 생전의 지인들이 동참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수현당 스님은 원공당 정무 대종사의 제자들로 구성된 중심문도회 제자로 20여년 전 법왕사에서 오래 머문 적이 있는 스님이십니다.

### 베트남 불자들 법왕사에서 수련회 가져

베트남 불자 60여명이 지난 7월 1일부터 1박2일 동안 법왕사에서 수련회를 갖고 백고좌법회에도 동참했습니다.

니다. 베트남 불자들은 한국의 전통 불교의식에 따라 법회와 참선 등 수행을 체험하고 법회에 참석하여 한국 고승의 법문도 듣는 귀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 초하루 법회 및 천일기도 봉행

법왕사에서 7월 23일 6월 초하루 법회와 함께 제2차 천일기도 20차 기도회를 봉행하였습니다. 실상 주지스님의 집전으로 봉행한 이번 법회는 백고좌법회 42일차 법회도 겸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천일기도는 매월 초하루, 보름 법회에 함께 봉행하며 오후 2시부터 2시간 30분 간 주지스님의 집전으로 약 천계 49독을 합니다. 천일기도에 동참하신 불자에게는 회향 기념 수계도 합니다.

## 가창 부처님 마을 도량 정비

가창에 마련한 제2요양원 부처님 마을의 주변 경관을 말끔하게 정비하여 더욱 정갈하고 여법한 공간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자리에 요양원이 건립되는 날까지 불자 여러분들께서 깊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법사비 보시하신 분

세광하이테크 관음회 전채솔

## 사보도움 주신 분

권순예 400부 최옥남 300부 이상조 200부  
김영자 100부 윤건볼심 150부 성화스님 300부  
베트남불자 300부

도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도움  
으로 법왕사보는 거듭 새롭게 꾸며질 것입니다.

## 공양 올리신 분

### ◎ 공양미 올리신 분

심보현 김무원 김세현 염홍식 성 윤  
박경란 심규암 심영호 김상희 염길태  
장우성 김경원 정 돈 이세정 박홍렬  
채용자 심영호 이세정 임귀연 김기수  
여택동 여영동 백경원 신용홍 정광춘  
권마하연

### ◎ 떡공양 올리신 분

이세정 우연희 양혜진 강소남 이세정  
양문갑 조정은 강경자 전영희 김정옥  
이세정 김분용 이정래 신동에 배해동  
구실상화 박무착심

### ◎ 과일공양 올리신 분

양영갑 박진원 김근태 심규암 방지현  
김인수 김호연 채용자 인준영 방지현  
김양순 김근태(생전예수재 6재) 김호연  
방지현 제갈옥 이서현 양영갑 양문갑  
전채솔 박이자 이현자 백철기 이보현심  
사공순옥 허대성화

### ◎ 물품보시 올리신 분

이영석(음료수) 김근태(음료수) 백월순  
김법안월

### ◎ 꽃공양 올리신 분

강현엽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주신 공양물 감사드립니다.

### ◎ 저금통 회향하신 분

신지원 이나경 이승엽 이승아 강춘희

### ◎ 삼사순례 공양 올리신 분

김기덕 진규영 여성태 신임선 장경숙  
김현주 김근태 고은희 김민지 황춘연  
이세정 구실상화 광귀여자

## 불사 올리신 분

### ◎ cms 불사하신 분(6/16 ~ 7/24일)

강유주 1만원 서필희 1만원 전재필 5천원  
강춘희 2만원 성점순 1만원 전태일 5만원  
김관용 5천원 손동림 5천원 정순희 2만원  
김명선 2만5천원 손향숙 2만원 정연이 8천원  
김명숙 1만5천원 송순분 2만원 정옥선 1만원  
김성미 5천원 송윤선 7만원 정재순 3만원  
김성자 1만원 신인숙 5천원 조희선 2만원  
김수라 3만원 신정옥 4만5천원 최승임 1만원  
김연자 1만원 심규암 1만8천원 최인경 1만원  
김옥자 1만원 심명선 1만5천원 최진석 5천원  
김정옥 1만원 오재대 1만원 한천숙 1만원  
김제순 1만원 오창혁 1만원 홍경숙 1만원  
김현숙 8천원 이숙희 2만원 황국희 2만5천원  
나형진 2만원 이호진 1만원 황금석 7천원  
류윤희 1만5천원 장명희 5천원 황덕선 5천원  
박정목 3만원 장미야 4천원  
사공관 5만원 전성복 1만원

### ◎ 오백나한 불사하신 분

94 박호윤 95 안영조

◎ 만불전 1만원불 봉안하신 분  
3557 난이수경

◎ 분당인등 올린 분  
370 서민호

◎ 산신인등 올린 분  
242 전진양 243 이지은 282 강 건  
283 강 준

## 왕생극락하옵소서

- ◆ 난구명서 영가의 초재가 7월 1일에 있었습니다.
  - ◆ 난이광우 영가의 초재가 7월 2일에 있었습니다.
  - ◆ 난수연스님 영가의 초재가 7월 2일에 있었습니다.
- 왕생극락을 기원합니다.

## 정기구독 신청을 받습니다

월간 법왕사보 '맑고 향기로운 사람들'에서는 불자 여러분의 정기구독 신청을 받습니다. 1년 정기구독료는 2만원입니다. 구독 신청은 전화나 팩스, 직접 방문 등 어떤 방법이든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시는 구독료는 사보 제작은 물론 불자들에게 불법을 전하는 법보시에 활용되는 등 큰 공덕을 쌓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문의를 법왕사 종무소로 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

전 화 | 053-766-3747, 팩스 053-767-6095  
주 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법왕사내  
'맑고 향기로운 사람들' 편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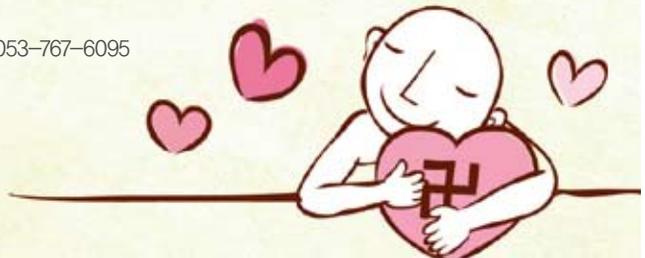


## 독자 원고 받습니다

월간 법왕사보 '맑고 향기로운 사람들'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투고와 사보를 읽은 후의 소감이나 각종 제언, 제안 등 후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제한이 없으며 신행생활의 체험담이나 수필, 기행문, 시 등 문학작품은 물론 사보를 보시고 난 후의 느낌이나 제언 등 무엇이든 보내주시면 선정해서 사보에 게재하고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 원고 보내실 곳

전화 | 053-766-3747, 팩스 | 053-767-6095



# 해오름 요양원 7월 소식



## 식중독예방교육

본 요양원에서는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식중독에 대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식중독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는 있지만 조금만 방심하면 대형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방을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요양원 내부와 외부에 소독(방역)을 실시하였으며 우리 어르신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약속드립니다.



## 우쿨렐레 공연

7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 처음으로 우쿨렐레 공연단이 본 요양원을 찾아주셨습니다. 학생들과 선생님이 하나가 되어 아름답고 경쾌한 다양한 음악을 연주해 주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얼굴은 손녀 같은 학생들의 재롱을 보시는 내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공연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 노인학대 예방교육

2017년도 하반기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수급자이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신체적, 정서적, 언어적 학대 등을 미리 예방하고 어르신들 상호간에도 좋은 관계를 유지시켜드리고 어르신들의 인권을 존중하며 보다 나은 노후생활을 즐기실 수 있도록 우리 직원일동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단장 공연

오랜만에 찾아오신 최단장 공연단의 공연을 보러 어르신들이 생활실을 가득 메우셨습니다. 노래를 하고 춤을 추면서 나른했던 오후를 신나게 재미있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들도 돌아가며 노래도 부르시고 덩실덩실 춤도 추시며 즐거워하셨고 다음 공연을 벌써부터 기대하고 계신답니다.

| 개인 정기봉사자 | 안순정, 이경희, 손미령, 이수정, 배영숙(웃음치료), 윤수빈, 강진주, 윤성덕, 문자영 (이미용)

| 단체 정기봉사자 | 수성시니어공연단(공연활동), 최단장공연단(공연활동), 씨포터즈(아외나들이), 친한 친구(놀이치료), 행복한교육이야기(놀이치료), 어린왕자(놀이치료), 그루터기(놀이치료), 오카리나공연단(공연활동), 하모니카공연단(공연활동)

##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6월)

### ◎ 수입내역

#### CMS(자동이체) 후원하신 분

강병철 1만원	김수자 1만원	도순자 1만원
강소남 5천원	김소희 1만원	도화순 5천원
강영도 2만원	김순덕 1만원	독고보검 1만원
고연숙 1만원	김순연 5천원	류유만 1만원
고재욱 2만원	김순태 1만원	류훈자(지일) 5천원
구정대 2만원	김양순 1만원	문성섭 1만원
권순득 1만원	김영호 1만원	박경란 1만원
권순미 1만원	김영희 5천원	박경자 5천원
권순영 1만원	김옥희 5천원	박귀분 1만원
권순칠 1만원	김외환 1만원	박남희 3만원
권영철 5천원	김용태 1만원	박대희 5천원
권오관 2만원	김우영 1만원	박동규 5천원
권오국 1만원	김원형 3만원	박상용 5천원
권춘자 3만원	김의목 1만원	박성숙 5천원
금명섭 5천원	김정규 5천원	박성은 5천원
김경자 1만원	김정숙 5천원	박성후 2만원
김경호 1만원	김정숙 5천원	박수진 1만원
김기덕 2만원	김정순 3만원	박순남 5천원
김기수 2만원	김정임 1만원	박순영 5천원
김대현 5천원	김정자 5천원	박원태 1만5천원
김만기 5천원	김주현 1만원	박인철 1만원
김명숙 1만원	김진성 1만원	박정목 1만원
김명옥 1만원	김진현 1만원	박종규 1만원
김미자 1만원	김진현 1만원	박종환 1만원
김미정 1만원	김진현 2만원	박치민 5천원
김미희 1만원	김진현 40만원	박희조 5천원
김민주 1만원	김진현 5천원	반룡사 1만원
김봉숙 5천원	김진현 5만원	방지현 1만원
김성의 1만원	남기웅 1만원	배수현 2만원
김수곤 5천원	노귀자 5천원	배하수 1만원
김수라 1만원	노수정 1만원	사공관 2만원

서동남 1만원	이병노 1만원	장재혁 5천원
서치경 1만원	이병희 1만원	장찬규 5천원
성인자 1만원	이복희 1만원	정경석 2만원
손수연 1만원	이상혁 1만원	정경숙 1만원
송민경 1만원	이석규 5만원	정명선 2만원
송정숙 5천원	이성자 1만원	정무시 1만원
시명숙 1만원	이성환 5천원	정미화 1만원
신구자 5천원	이승환 5천원	정민경 1만원
신돈식 1만원	이옥자 1만원	정숙자 1만원
신세호 1만원	이용옥 1만원	정순옥 5천원
신임선 5천원	이유태 1만원	정시영 1만원
신충호 5천원	이인순 5천원	정연이 5천원
신홍준 1만원	이임숙 2만원	정옥선 1만원
신화식 1만원	이재봉 5천원	정옥수 5천원
심규암 5천원	이전희 5천원	정인순 5천원
안경순 1만원	이점예 2만원	정태교 5천원
안명희 1만원	이정숙 1만원	정혜숙 1만원
안인술 5천원	이정연 5천원	조규인 1만원
안희선 1만원	이정옥 1만원	조성자 5천원
양니영 5천원	이정화 1만원	조영석 1만원
양봉률 1만원	이정희 3만원	조인성 5천원
양지영 1만원	이정희 5천원	조정자 5천원
양혜진 1만원	이종희 5천원	진봉희 1만원
양희숙 1만원	이준우 5천원	채옥연 5천원
여택동 5천원	이창수 1만원	최분규 1만원
오난옥 5천원	이채원 1만원	최승임 1만원
옹마관음사 3만원	이현옥 1만원	최영희 1만원
우정미 1만원	이호동 5천원	최윤희 5천원
유경희 1만원	이효조 1만원	최창숙 5천원
유명옥 1만원	임상덕 1만원	한규매 1만원
윤윤근 1만원	임예숙 1만원	한희록 1만원
이경자 1만원	장성규 5천원	허유미 5천원
이남희 1만원	장수정 1만원	홍기학 1만원
이명숙 1만원	장시원 1만원	홍애분 1만원
이명희 1만원	장우성 1만원	황미선 2만원

황준원 1만원    황지영 1만원    황학영 1만원

**총합계 : 2,445,000원**

**무통장으로 후원하신 분**

이강복 30,000원    강미경 10,000원

◎ **지출내역**

- 부식재료 구입비 : 1,600,000원
- 케이크 구입비 : 55,000원
- 간식 구입비 : 577,660원
- CMS수수료 : 44,000원
- 금융결제원요금 : 44,000원
- SMS수수료 : 500원
- 사무용품 구입비 : 60,160원
- 벽 도색비 : 313,500원
- 갑갑 구입비 : 180,000원
- 현수막 제작비 : 44,000원

**총지출 : 2,740,620원**

- ※ 해오름요양원을 위해서 후원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월 사보를 통해서 수입, 지출내역을 상세히 기록할 것이며 남은 금액도 어르신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 ※ 해오름요양원에서는 후원자님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CMS자동이체신청을 개설했습니다. 법원사 및 해오름요양원에 오시면 신청서가 구비되어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며 나누는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후원물품 보내주신 분**

- 김용희 어르신 보호자 : 수박 1통
- 박정록 어르신 보호자 : 요플레 20개
- 유세묘 어르신 보호자 : 토마토 2박스
- 채용자 어르신 보호자 : 비타500 1박스
- 정갑순 어르신 보호자 : 메론 1박스
- 박해연 어르신 보호자 : 야쿠르트 30개, 사탕 2봉
- 권순주 어르신 보호자 : 수박 3통
- 김영화 어르신 보호자 : 커피 1통
- 김경순 어르신 보호자 : 수박 2통, 요플레 32개
- 이재희 어르신 보호자 : 통닭 2마리

- 임성녀 어르신 보호자 : 수박 2통
- 서운수 어르신 보호자 : 수박 1통
- 윤봉한 어르신 보호자 : 수박 5통
- 김길순 어르신 보호자 : 오렌지주스 2병
- 이갑석 어르신 보호자 : 사탕 2봉
- 김인수 : 수박 1통
- 박경란 : 쌀 20kg
- 방지현 : 요플레 50개
- 무하스님 : 사탕 2봉

## 해오름 요양원 새가족

신규 입소 어르신  
서봉득 어르신    김정란 어르신

## 자원봉사자 모집

- ◎ **활동일시**  
- 매주 1~2회 14시~15시(시간, 요일 조절 가능)
- ◎ **활동분야**  
- 미술활동, 음악활동, 종이조형, 아로마요법, 생활체육, 요가, 민요, 원예, 다도, 놀이활동 등
- ◎ **신청방법**  
- T. 053-766-5767 담당 사회복지사 이상희  
- 방문접수 법원사 1층 요양원 사무실 (수성구 파동로 51길 96)

## 요양원 입소 안내

- ◎ **입소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으로 장기 요양 등급 1~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어르신
- ◎ **입소시 준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1부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 건강진단서 1부
- ◎ **이용료**  
- 기초생활수급자 전액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저소득층) / 국가유공자 본인부담금 10%

- 비급여항목(식대, 간식비) 별도 부담  
◎ 문의 전화: 053)766-5767 팩스: 053)766-5095

## 후원안내

금품후원 새마을금고 9002-1643-4050-9  
예금주 해오름요양원

물품후원 기저귀, 의약품, 세제류, 의복, 주·부식류, 생활용품 등

### CMS자동이체 후원

법왕사 및 해오름요양원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1구좌 5,000원부터)

## 해오름 사람들

\* 해오름요양원에서는 7월~8월 중 여름휴가를 실시합니다. 보호자님들도 무더위 건강 조심하시고 휴가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 ● 직원 동정

그동안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독고보검 간호조무사께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후원업체 소개



하회물류(주)(www.hahofood.com)에서는 매일 어르신들의 부식에 필요한 신선한 두부를 후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후원업체의 사랑과 나눔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 ● ● 요양원 직원들도 삼사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지리산 연곡사 입구에서 단체사진!

### ● ● 多情佛心(다정불심) 원훈이 생겼습니다!



해오름요양원은 2012년 3월 6일 25명으로 개원하여 2014년 7월 28일 44명으로 증원한 후 2017년 7월 현재 정원이 다 찹습니다. 원훈대로

다정다감하며 자비롭고 착한 마음으로 어르신들 섬기는 것이 부처님의 뜻을 알고 어르신들 더욱 더 정성껏 섬기는 해오름요양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오름마을 건립 한가족 한평 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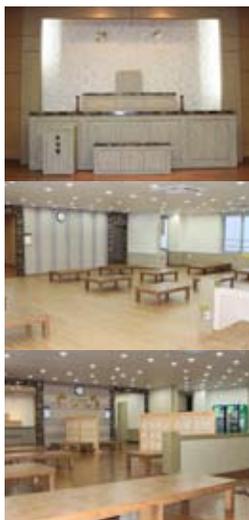
**동참금** 한 가족 100만원(2명 이상 새겨드림)  
**문의** 종무소(766-3747, 9088)  
**동참계좌** 대구은행 047-05-003698-6 법왕사  
 농협 702010-51-106490 법왕사



법왕사에서 불교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정식 인가를 받은 해오름요양원을 개설, 편찮으신 어르신들을 모시면서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왕사는 해오름마을 건립을 위한 한가족 한평 불사를 시작했습니다. 해오름마을은 현재 부지 4,500여평을 마련하였으며 조만간 개원법회를 봉행하고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처님의 대자대비 정신과 우리의 전통인 효행을 실천하는 방편인 요양원 건립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내 가족의 일처럼 한마음으로 모십니다

## 대구 한성병원 장례식장



대구 한성병원 장례식장은 현대화된 쾌적한 시설과 정직, 성실한 서비스로 올바른 장례문화를 실천합니다.

- 편안한 상주실(2실 및 접견실)
- 쾌적한 지상 위치
- 사통팔통의 편리한 교통

**주소** 대구 북구 칠성남로30길 28

**문의** 대표 전화 053-253-3444 / 010-4005-4444(김중락)

**찾아오시는 길**





## 4층 대적광전 오백나한상 봉안 모연문

법왕사에서는 종합복지관 4층 대적광전 삼신불 후불로 5백나한상 봉안을 모연하고 있습니다.

나한(羅漢)은 일체 번뇌를 끊고 깨달음을 얻어 더 이상 생사윤회의 흐름에 태어나지 않는 성자를 이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부처의 경지에 오른 16명의 뛰어난 제자를 '16나한'이라고 하며 부처가 열반한 뒤 제자 가섭이 부처의 설법을 정리하기 위해 소집한 회의 때 모였던 제자 500명을 '500나한'이라 하는데 나한은 인간의 소원을 성취시켜 준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신앙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당송(唐宋)시대에 유행했던 나한신앙은 삼국 후기부터 소개되어 고려시대에 크게 유행하였으며 조선시대에는 복을 주는 '복전(福田)'의 의미로 추앙받으면서 서민들과 가장 친숙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중생의 소원을 들어주는 복전인 나한상 봉안에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두루 동참하시어 무량한 가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9월 20일 백고좌법회 회향시 1차로 오백나한상 250불 봉안식을 병행합니다.**

- 1인 1나한 동참금 : 108만원(분할납부 가능)
- 동참계좌      ○ 대구은행 047-05-003698-6 법왕사  
                    ○ 농   협 702010-51-106490 법왕사





# 법왕불교대학

## 초·중급 및 야간반, 아함반 모집

법왕불교대학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진리를 배워 신심과 원력을 돈독하게 하기 위한 불교대학 초·중·고급 및 야간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초급반은 주지스님 직강으로 사찰예절을 비롯해 기초교리(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를 강의하며, 야간반은 주지스님과 외부 법사를 초빙하여 주요 경전을 강의합니다. 한편 아함경을 30년 동안 연구하신 제주도 연담스님을 초청, 2년에 걸쳐 아함경 전반에 대해서도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불교에 관심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초급, 중급, 야간반은 현재 개설 중입니다.  
 아함반은 새해 3월 신학기에 개강합니다.  
 수강료는 분기별 3만원(월 1만원)입니다.

개설반	법사	주제	시간
초급반	주지스님	기초교리(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야간반	주지스님	지장경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특강반	외부법사	주요 경전(금강경, 아미타경)	추후 공고
아함반	연담스님	아함경(2년간 연속 강의)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야간반	관일스님	법구경 특강	저녁 7시 ~ 8시 30분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T. (053)766-3747 F. (053)767-6095  
[www.bubwangsa.or.kr](http://www.bubwangsa.or.kr)



# 나라의 안녕과 번영,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제34회 경율론(經律論) 삼장(三藏) 백고좌대설법회(百高座大說法會)

법왕사에서 2017년 정유년 들어 두번째인 제34회 백고좌법회를 6월 13일부터 9월 20일까지 봉행합니다. 백고좌법회란 100일 동안 100분의 고승대덕 스님을 모시고 사자좌를 차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연속으로 설법회를 여는 것으로 신라 진흥왕 때에 처음 열린 이래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에 성행하다가 조선시대에 그 맥이 끊어진 것을 1995년 법왕사에서 복원하여 오늘이 이르고 있습니다.

법왕사 백고좌법회는 1995년 처음 시작한 이래 한 해도 빠짐없이 매년 1~3회씩 개최하고 있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불자들에게 익숙한 법회입니다. 이번 제34회 백고좌법회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덕 높은 스님들을 두루 초청하여 신행생활에 꼭 필요한 팔만사천, 금구성언의 법문을 듣고 친견하는 귀중한 기회이오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

증명 : 중심도회 회주 학승 심경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주지 如是 實相 합장

**• 48일차**  
7월 30일  
특별법문  
효범스님  
부산 부채님마을 주지

**• 51일차**  
8월 2일  
특별법문  
재원스님  
양산 통도사 한주

**• 55일차**  
8월 6일  
특별법문  
일진 비구니스님  
운문사 승가대학장

**• 60일차**  
8월 11일  
특별법문  
진휴스님  
해인사 승가대학 교수사

◆ 일시 : 2017년 6월 13일 ~ 9월 20일 (100일간)

◆ 장소 : 법왕사 복지관 4층 대적광전 ◆ 법회 : 매일 오전 9시 기도, 법문 11시

회차	날 짜	법사스님	약 력	회차	날 짜	법사스님	약 력
48일차	7월 30일 회	효범스님	부산 부채님마을 주지	55일차	8월 6일 회	일진비구니스님	운문사 승가대학장
49일차	7월 31일 회	마정스님	서울 용마관음사 주지	56일차	8월 7일 회	해해스님	경산 반룡사 주지
50일차	8월 1일 회	석암스님	양구 관음선원장	57일차	8월 8일 회	보각스님	김포 중앙승가대학 교수
51일차	8월 2일 회	재원스님	양산 통도사 한주	58일차	8월 9일 회	본원스님	대구 수덕사 주지
52일차	8월 3일 회	승오스님	전 해인사승가대 강사	59일차	8월 10일 회	지철스님	양양 낙산사 포교부장
53일차	8월 4일 회	원광스님	고령 반룡사 주지	60일차	8월 11일 회	진휴스님	해인사 승가대학 교수사
54일차	8월 5일 회	법수스님	경주 동국대 정각원장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T. (053)766-3747 F. (053)767-6095  
www.bubwangsa.or.kr



**해오름요양원**

한결 같은 마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96  
T. (053)766-5767 F. (053)766-5095  
www.silver79.kr